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8 May 2017 (afternoon)
Lundi 8 mai 2017 (après-midi)
Lunes 8 de mayo de 2017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그린프린터

① 제목: [- X -]

- 그린프린터는 프린터 출력 시 양면인쇄 및 흑백인쇄를 유도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 그린프린터 사용으로 종이와 인쇄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종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탄소 배출을 막아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② 제목: [- 1 -]

- 기업 내 1인당 인쇄용지 소비량은 하루 평균 40장입니다. 단 한명이 연간 9,600장의 A4 종이를 사용하며, 이는 27.65kg의 CO₂를 배출하게 됩니다.
- 그린 프린터는 양면인쇄 및 흑백인쇄를 통해 종이와 인쇄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외환은행에서 종이절감 12%, 출력비용 16% 절감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그린 프린터를 사용하면 탄소배출을 억제하여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제목: [- 2 -]

- 그린프린터는 사용자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대상	비용	특징	비고
개인용 그린프린터	가정, 개인, 학생 등 누구나	무료	개인 절감효과 통계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음
기업용 그린프린터	기업, 공공기관, 단체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사용자 통계 제공 (관리자) • 공지사항 관리 	기업회원으로 등록 후 사용가능

④ 제목: [- 3 -]

-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 프로그램 화면에서 사용 효과를 눌러서 인쇄용지 절감효과, 탄소저감량 등을 확인합니다.
- 기업용의 경우 기업 내 용지절감 실적을 집계하여 확인합니다.

그린 오피스, <http://green-office.kr> (2015)

본문 B

불안을 넘어 긍정으로

2015년 우리는 메르스와 프랑스 테러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불안에 떨었다. 이 외에도 개인마다 불안의 원인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면 몸과 마음은 지치기 마련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5 불안? 꿈이나 사자가 내 앞에!

상상해 보자. 숲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이나 사자를 만났다. 이 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선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며 손에 땀이 나고, 어깨와 다리는 딱딱해질 것이다. 당장 어디로 도망쳐야 할 것 같은 불안에 압도당할 것이다. 만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거나, 돌을 던져서 꿈이나 사자를 물리쳤다면 불안 반응에서 벗어난다. 불안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도망가거나 싸우도록 돕는 일종의 보호 장치, 경보 시스템이다. 꿈이나 사자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싸울 대상이 없다.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경쟁과 압박 속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10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표적이 없는데도 불안을 계속 느끼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는 불면증이다. 현대인들의 50%가 불면으로 힘들어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불면은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다. 불안과 숙면은 상극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15



20 불안의 시대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긍정의 힘, 즉 긍정력이다. 심리학자들은 2000 년부터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을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5 1. 감사 일기와 편지를 써 보자. 매일 삶을 마감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일기를 써보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선생님 등 내 인생에서 소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손 편지를 써 보자.

2. [- X -] 을 극복하기 보다는 장점을 살려보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점은 극복하기도 어렵고, 극복해도 또 다른 단점이 보일 수 있다. 당신이 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

30 이런 작은 [- 16 -] 이/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작은 감사 와/과 노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며 더 오래 살고, 일의 [- 17 -] 도 향상시킨다고 한다. 2016 년 한 해 동안 [- 18 -] 의 힘을 키워보자.

강현식, 국민 건강 보험 건강천사 (2015)

본문 C

미디어 위치 한상희 팀장

미디어는 진화한다.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 앉아 흑백 TV를 보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휴대 인터넷 (Wibro) 으로 TV를 본다. 버스를 타면,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서 TV를 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요소이다.

- 5 그렇다면 “미디어의 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디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미디어 위치 (Media Watch) 의 한상희 팀장을 만나 미디어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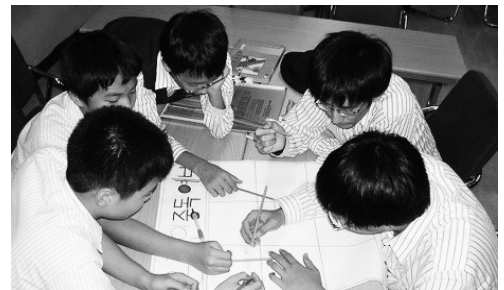
Watch-dog을 아십니까?

- 10 Watch-dog. 개 이름이 아니다. 감시, 모니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에 영감을 받아 “미디어 위치”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미디어 위치는 현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의 소모임이다. 96년에 주부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 모니터회”를 만들었고 이 모임이 나중에 “미디어 위치”가 되었다.

- 15 “처음에는 저도 회원 활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대학원에서 신방과를 졸업하고 경실련 회원이 되었죠. 경실련 소식지를 보는데 방송 모니터회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시작한 일이 벌써 십 년이 됐어요.”

미디어 위치, 무슨 일을 할까?

- 20 미디어 위치에서 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TV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매년 모니터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매체를 보는 눈을 기르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디어 교육은 98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 25 “‘방송 바로보기’ 라는 이름으로 특별활동반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때는 45개교에서 교육을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서른 개 정도의 학교를 맡고 있지요.” 다양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접했던 만큼 기억에 남는 교육도 있었다. “시간이 많으면 학생들이 직접 간단한 제작물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네 컷짜리 만화를 그려서 찍고 내레이션을 입혀 완성하더라고요. 캠코더만 주었을 뿐인데
- 30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죠. 주어진 재료만 갖고도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학생들의 창의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상희 팀장이 보는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35 “개인적으로는 하얀 거탑이 참 좋았어요. 색다르면서도 전문적이었거든요. 장점을 얘기하자면 많은 것 같아요. 권선징악적 결말이 아니고,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감동을 줬어요. 드라마 하면 흔히 삼각, 사각관계 내지는 출생의 비밀, 이혼, 불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하얀 거탑은 그렇지 않아서 신선했죠.”

나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40 “‘나쁜XX 착한OO’라는 프로그램이요. 가족 시간대인 7시 반에 방영되는데도 내용이 선정적이에요. 케이블 채널에서는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이 문제죠.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고, 킹카, 퀸카라는 잣대에 맞춰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박유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

본문 D

백악관 주방장이 진관사 절밥에 빠진 이유는?

- ① 5
- ② 10
- ③ 15
- ④ 20
- ⑤ 25
- ⑥ 30

“저는 불고기를 배워오라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사찰에서 배운 콩국수를 해 주겠습니다.”
 지난 해 북한산 자락의 비구니¹ 사찰²인 진관사를 방문했던 샘 카스 당시 백악관 영양정책 선임고문 겸 부 주방장이 콩국수와 오이물김치 같은 사찰 음식을 배운 뒤 한 말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불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10 지난 달에는 미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박사가 첫 번째 방문지로 진관사를 방문했다. 바이든 박사가 진관사를 찾은 것은 여성 스님들이 한국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며 본인이 방문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절 이곳 저곳을 돌아보고 한국 특유의 소스인 된장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백악관 블로그는 전했다.

③ 15 이처럼 진관사의 음식을 맛 보고 간 유명 인사는 많다. 리처드 기어 같은 연예인은 물론 세계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의 하나인 덴마크 노마의 르네 레드제피도 지난 해 11월 진관사를 찾았다. 노마는 덴마크 땅에서만 나는 음식 재료를 고집하는 레스토랑이다. 이 곳은 2010년부터 영국 요리잡지 “레스토랑이 뽑는 세계 최고 음식점”에 4번이나 뽑힌 적이 있다.

④ 20 노마의 주방장 레드제피는 인터뷰에서 “사찰 음식은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기를 쓰지 않고 맛을 내기 때문에 비만 문제로 고민이 많은 서구인들의 관심이 높다. 또, 이것에는 절에서 맡은 냄새와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 자연을 섭취한 느낌이다. 유럽에서는 음식을 존엄하게 대하기 보다는 쾌락의 수단으로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채식 식당을 만들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⑤ 25 진관사의 스님인 계호 스님은 사찰 음식의 3가지 원칙을 1) 청정, 2) 유연, 3) 여법으로 꼽았다. 제철에 난 채소를 냉장 보관하지 않은 청정한 상태에서 삶고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뜻에 맞추어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⑥ 30 사찰 음식은 활동량이 적은 스님이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파 마늘 등과 같은 자극적인 양념을 쓰지 않아 소화가 잘 된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중, 한겨레 (2015)

¹ 비구니: 여자 스님

² 사찰: 절